

제5호(2015. 9. 17.)

# 2015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

김미복 김윤진



1. 문제제기 .....	1
2. 주요 정책과제 만족도 조사결과 .....	2
3. 정책적 시사점 .....	15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61-820-2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김미복 연구위원	061-820-2323	mbkim@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2015년 ~7월 기간 농식품부 주요 정책과제 11개를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수요자 조사
- (정책 필요성) 87.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6.19
  -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가 가장 높은 평가
- (수요자 의견 반영도) 51.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60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는 68%,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는 39%가 긍정적 답변
- (정책 일관성) 54.2%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78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 축산, 6차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는 높게, 식품산업 육성, 내실 있는 FTA 대책추진, 귀농·귀촌 활성화는 다소 낮게 조사
- (정책 목표 달성도) 48.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48점
  - 6차산업화, 자본·기술기반 ICT 융복합,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는 60% 내외의 만족도
- (사업기간 적절성) 55.4%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81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등 과제는 긍정적 응답 비중 높고, 6차산업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친환경농업, 식품산업육성은 부정적 응답
- (사업규모 적절성) 47.1%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58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등 과제는 긍정적 응답 비중 높은 반면, 친환경농업, 식품산업육성은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집행) 37.5%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3.95점
  - 문제점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과제는 6차산업화, 친환경농업, 소득·경영 위험관리로 타 항목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존재
- (전반적인 만족도) 54.7%가 긍정적 답변, 7점 척도 기준 4.74점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6차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친환경축산 과제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평가
-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된 소득·경영 위험관리 관련 정책은 최근 농정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정신뢰 강화를 위해서 정책 수요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반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식품산업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농업,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의 과제는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의 규모화, 기간 확대 등 개선이 필요
- 정책 인지 경로는 행정기관 의존도가 높아 지자체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 필요



## 1. 문제제기

- 정책과제 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및 정책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정책과제의 만족도를 조사, 그 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고
-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를 파악하고 측정
  - 수요자 및 전문가 입장에서 인식하는 만족도 결과 등 성과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고
- 농업인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별 특정 정책에 해당하는 수혜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부족하여 조사를 실시
- 향후 주기적으로 주요 정책과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의 전문화 및 DB 구축 방안 마련
  - 주요 정책과제 성과에 대해 일반 국민, 정책고객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확대 및 자료 축적
- 이 자료의 목적은 농식품분야 정책 성과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수요자 만족도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주요 정책과제의 필요성, 의견 반영 정도, 홍보, 일관성, 초기목표달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형평성, 집행상 문제점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방향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농식품분야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주요 정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 파악

”

“  
11개 과제를 선정,  
과제별로 100명의  
수혜자 조사  
”

## 2. 주요 정책과제 만족도 조사결과

### 2.1. 조사개요 및 응답자 유형

- 80개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제 중 중요도·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11개 과제를 선정

#### 〈조사대상과제〉

△농업의 6차 산업화 △귀농·귀촌 활성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신유통 확대 및 사전적·자율적 공급안정 강화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수출기반 강화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축산 활성화 △자본·기술 기반 융복합 ICT 확산 △친환경농업 활성화

- 설문대상: 정책 수요자, 전문가 등 과제별로 100여 명
- 조사기간: 2015년 6~7월
-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FAX, E-mail 등 활용 조사
- 정책과제별 응답자 100명, 전체 1,100명이 해당 조사에 응답. 이 중 정책 수요자/고객이 855명, 정책 추진기관/단체가 245명
  - 정책 수요자: 농업(법)인, 생산자, 유통인, 축산농가 등
  - 정책고객: 연구기관, 전문가, 농업단체 등
  - 정책추진기관/단체: 지자체, 지역농협, 사업시행 기관 등

표 1. 대상자 특성별 응답자 수

구분	사례수	
	사례수	%
전체	1,100	100.0
정책수요자/고객	855	77.7
정책추진기관/단체	245	22.3

## 2.2. 개별 정책과제 조사결과

### □ 주요 정책과제의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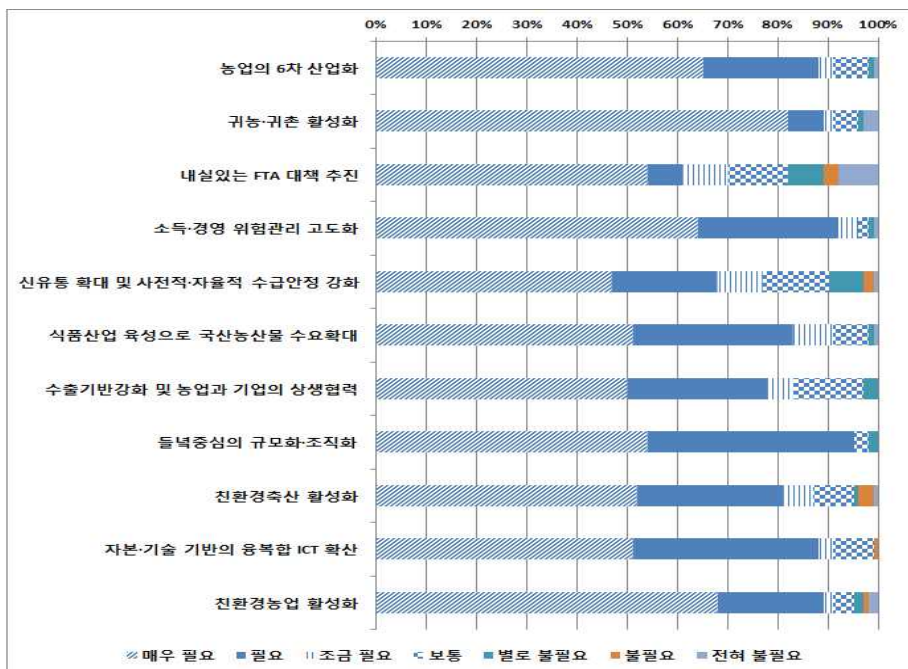
- 11개 과제 전체적으로 대부분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는 합친 긍정적 답변이 87.5%를 차지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6.19점
- 정책과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이고, 특히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높은 수준
  - 내실 있는 FTA 대책추진 과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70%는 긍정적으로 평가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는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음. ‘매우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인 필요성을 인식한 응답자 비율이 높은 과제는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이고 6차산업 활성화, 소득·경영안정 과제 역시 65%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

“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의 필요성  
가장 높게 인식

”

그림 1. 해당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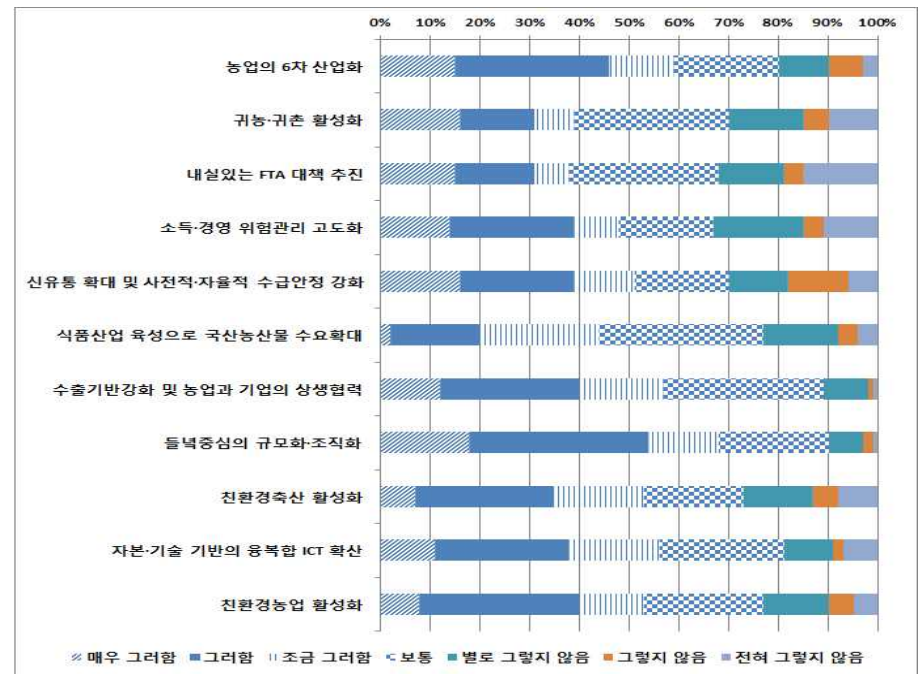


“  
 수요자 의견 반영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

□ 주요 정책과제의 수요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만족도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대상자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1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절반 정도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 답변은 응답자의 51.5% 수준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60점임
- 과제별로 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는 편차가 있었으나 가장 높은 과제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임
  -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39%로 가장 낮고,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의 의견 반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68%)
  - 대부분 과제에 대해 수요자의 의견이 ‘매우’ 반영되고 있기보다는 ‘조금’ 반영되고 있다고 답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음
  -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즉 부정적인 대답을 한 비중은 귀농·귀촌 활성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신유통 확대 과제가 가장 높았음

그림 2. 해당 정책의 정책대상자 의견 반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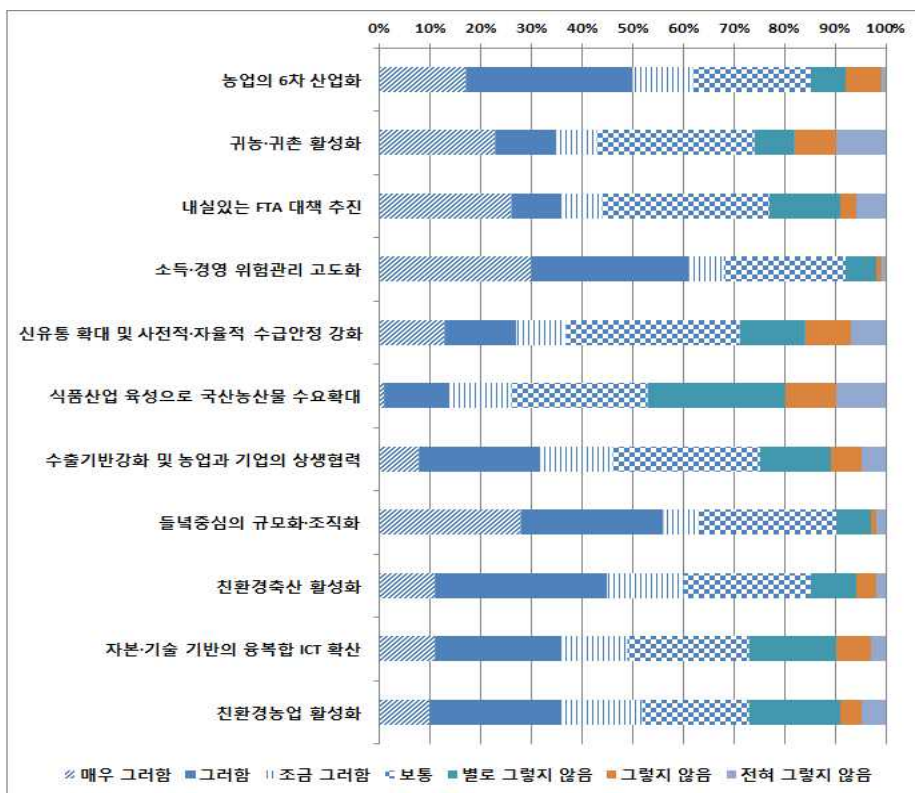


### □ 주요 정책 과제 홍보

- 주요 정책과제의 홍보에 대한 문항으로 11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쳐 응답자의 50.0%가량이 그렇다고 하였음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67점
- 과제별로 홍보에 대한 만족도에는 편차가 있었음
  - 농업의 6차 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 축산 활성화 사업의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60% 이상으로 높은 편임
  -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과제는 홍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음(26%)
  - 중립적(‘보통이다’)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이 많은 과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자본·기술 기반의 융복합 ICT 확산, 수출기반강화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과제임

“  
식품산업육성 과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  
”

그림 3. 해당정책의 홍보 정도



“  
6차산업화, 들녘 중심  
규모화조직화, 친환경  
축산, 소득경영  
위험관리과제의  
일관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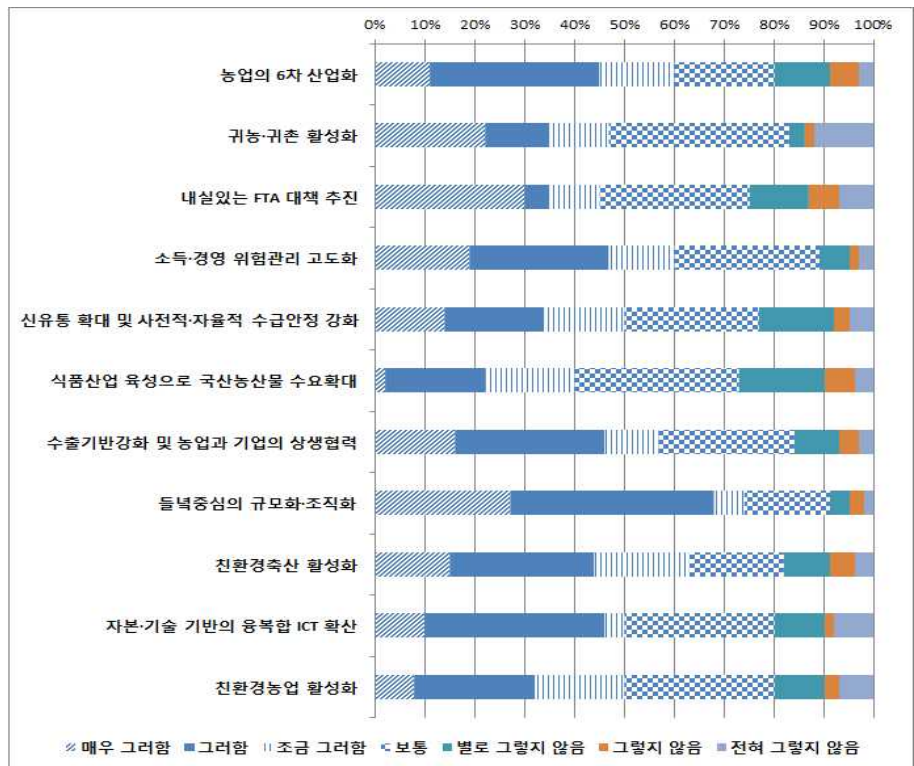
”  
“  
식품산업,  
FTA 대책추진,  
귀농·귀촌 과제는  
정책 일관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

”

□ 주요 정책과제의 일관성

- 주요 정책과제 정책 방향, 내용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11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쳐 응답자의 54.2%가량이 그렇다고 하였음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78점
- 과제별로 일관성에 대한 만족도는 편차가 있었음
  - 농업의 6차 산업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 축산 활성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의 일관성에 대한 만족도는 60% 이상으로 높은 편임
  -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는 일관성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중이 적었음
  - 중립적(보통이다)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이 많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친환경축산 활성화 과제는 만족도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있었음

그림 4. 해당 정책의 일관성



## □ 주요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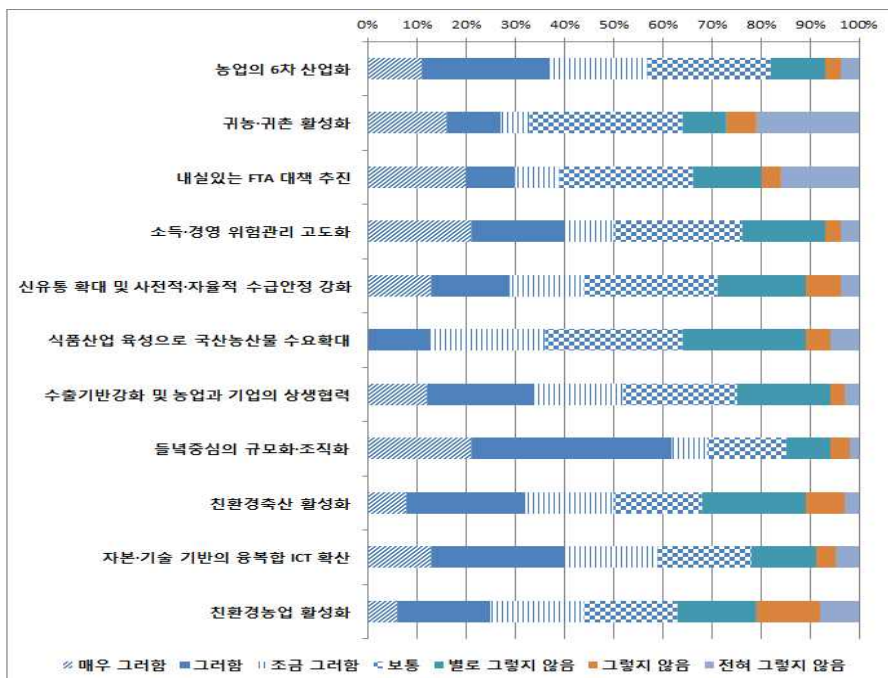
- 주요 정책과제의 초기목표(예를 들면, 소득안정, 위험관리, 가격안정 등)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1개 과제에서 절반 이하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초기 목표 달성도가 낮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쳐 응답자의 48.5%가량이 그렇다고 하였음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48점
- 과제별로 목표 달성도에 대한 만족도는 편차가 있었음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이 다소나마 높은 과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자본·기술 기반의 ICT 융복합,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
  -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과제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중이 적었음
  - 중립적(보통이다)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이 많은 과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친환경 농업 활성화, 친환경 축산 활성화 등으로 이 중 FTA, 친환경 농업 과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 역시 적었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48.5%)가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답변

”

그림 5. 해당 정책의 초기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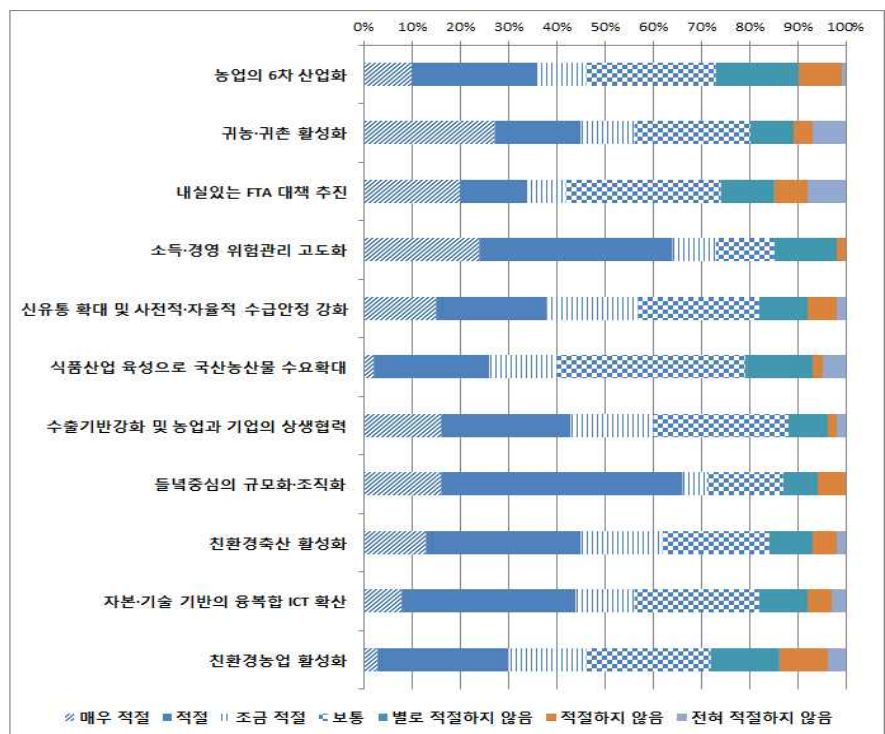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 활성화  
과제는 사업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  
”

□ 주요 정책 과제의 사업기간 및 규모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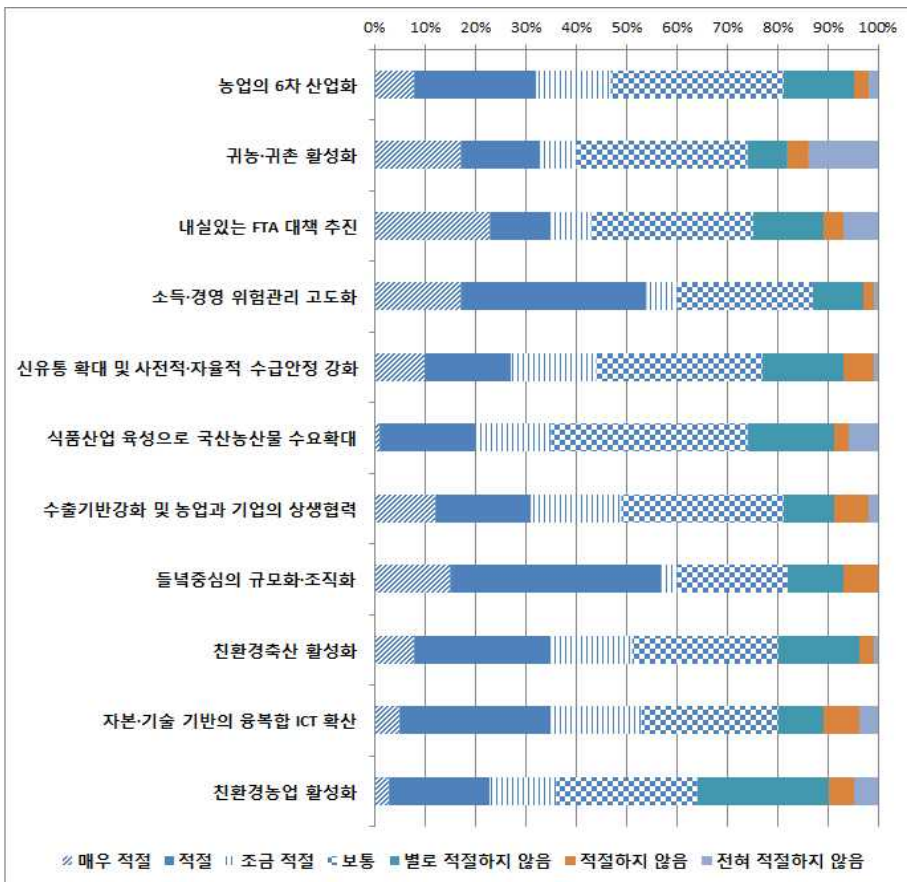
- 과제별로 사업기간 및 규모 즉, 사업내용 및 조건에 관한 만족도는 편차가 있었음. 사업규모보다는 사업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에 관해서는 11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쳐 응답자의 55.4% 가량이 그렇다고 하였음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과제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축산 활성화, 수출기반 강화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임
  -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업의 6차 산업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과제는 기간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중이 40%대로 낮았고, 친환경농업 활성화 과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중립적으로 응답한 비중보다 높았음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81점

그림 6. 해당 정책의 사업기간 적절성



- 사업내용 중 사업규모에 관해서는 11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절반 이하로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사업기간에 비해 만족도가 하락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쳐 응답자의 47.1%가량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 30.6%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응답 비율은 22.3%임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과제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임
  -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활성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과제는 규모가 적절하다고 답한 비중이 낮았음
  - 하지만 식품산업 육성 과제는 중립적으로 답한 비중이 높았던 반면, 친환경 농업 활성화 과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58점

그림 7. 해당정책의 사업규모 적절성



“ 사업기간에 비해 사업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하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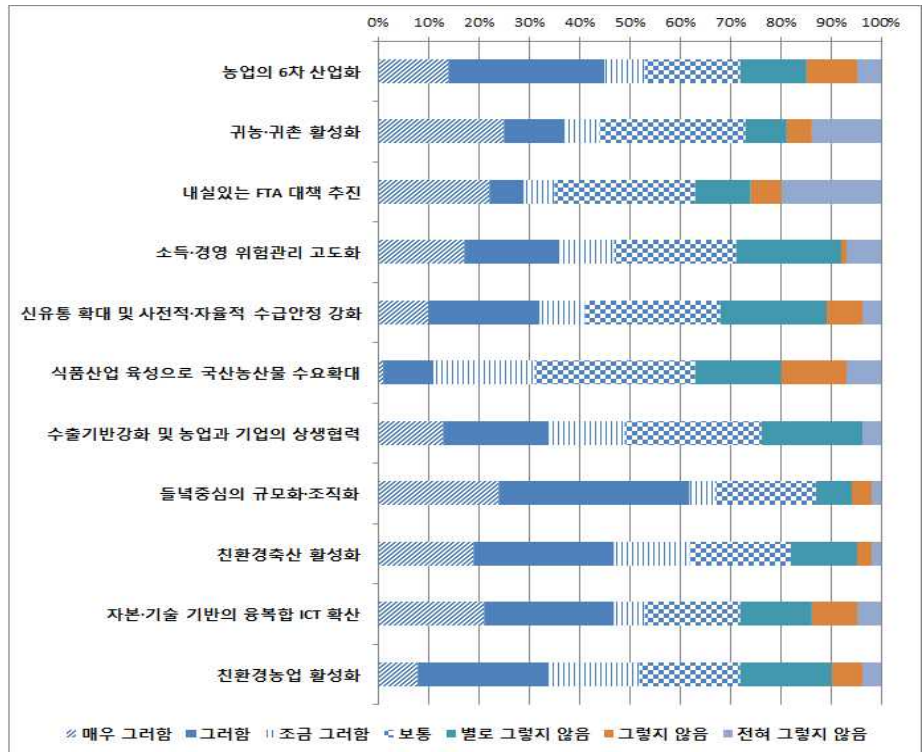
품목 형평성, 지원대상  
적절성에 대해  
절반 이하(48.5%)만이  
만족

”

### □ 주요 정책과제의 지원 형평성

- 주요 정책과제의 품목 형평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문항으로 11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절반 이하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쳐 응답자의 48.5%가량이 그렇다고 하였음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55점
- 과제별로 지원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는 편차가 있었음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과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 축산 활성화 과제임
  -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신유통 확대 및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강화 과제는 공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낮았음
  - 식품산업 육성은 보통이다라고 중립적으로 답한 비중이 높았고 긍정적인 응답비중이 높은 6차산업화 과제 역시 중립보다는 부정적 답변이 많아 형평성에 대한 만족도는 양극화되어 있음. 실제로 27.4%가 부정적으로 응답

그림 8. 해당 정책의 공평성



## □ 주요 정책과제의 집행상 문제점

- 집행 측면 만족도를 알아보았음. 사업신청, 지원, 관리 측면의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37.5%가 ‘그렇다’라고 하였음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합쳐 응답자의 44.5%가량이 문제점이 없다는 쪽으로 응답하였음
  - 수혜자 입장에서 사업신청 등 절차 면에서 애로사항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과제별로 집행 측면 만족도는 편차가 있었음
  - 문제점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과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친환경 농업 활성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임. 타 항목 만족도가 높은 과제라 하더라도 집행상 문제점은 있다고 답하였음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는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16%에 불과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는 24%, 수출기반 강화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23%로 낮은 편임
  -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과제는 타 문항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집행상의 문제점 역시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식품산업 육성 과제는 중립적으로 답한 응답이 많았음
-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6.9%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이 43.9%로 높은 편임
  - 친환경축산 활성화, ICT 융복합 확산, 신유통 확대 및 수급안정 강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의 긍정적 응답비중이 30% 이상임
  - 특히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의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응답자의 37.5%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 시정·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중은 26.9%에 불과

”

그림 9. 해당 정책의 추진절차상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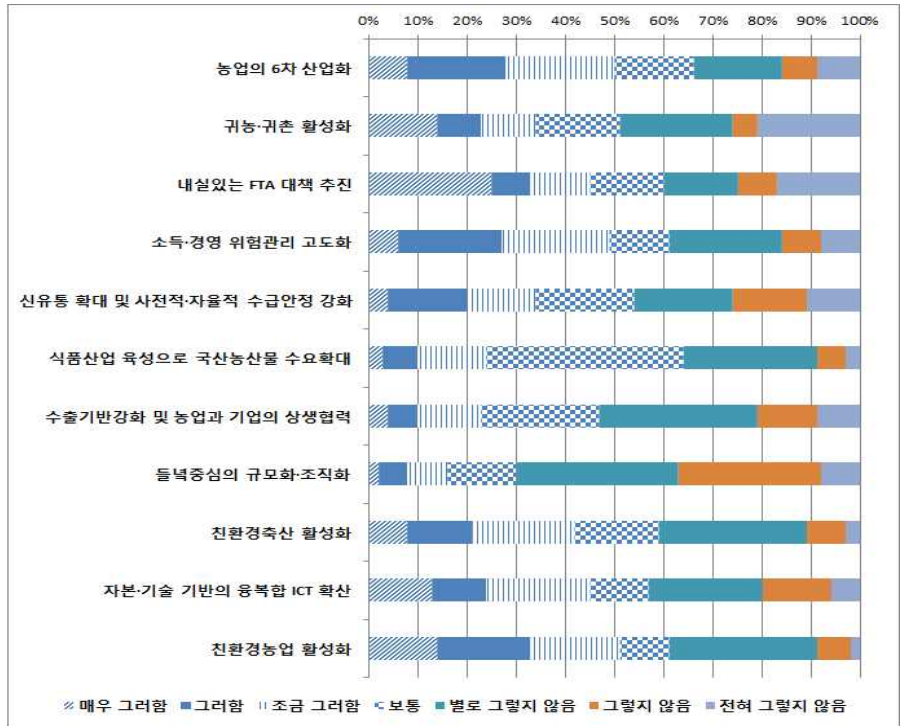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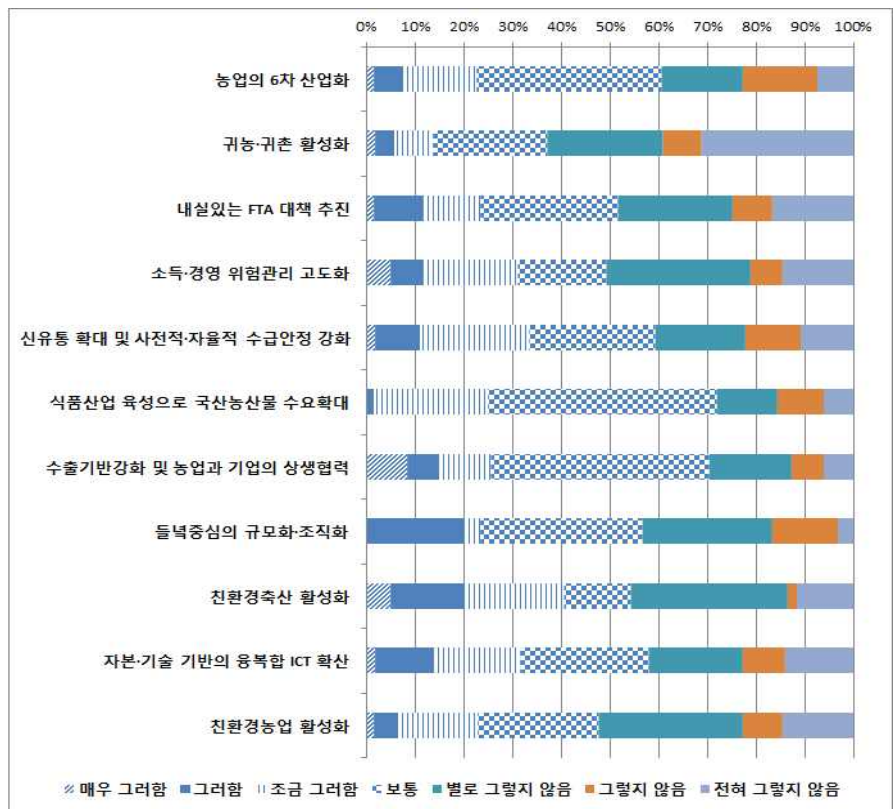


그림 10. 해당 정책의 문제점 개선 노력에 대한 만족도





## □ 주요 정책과제의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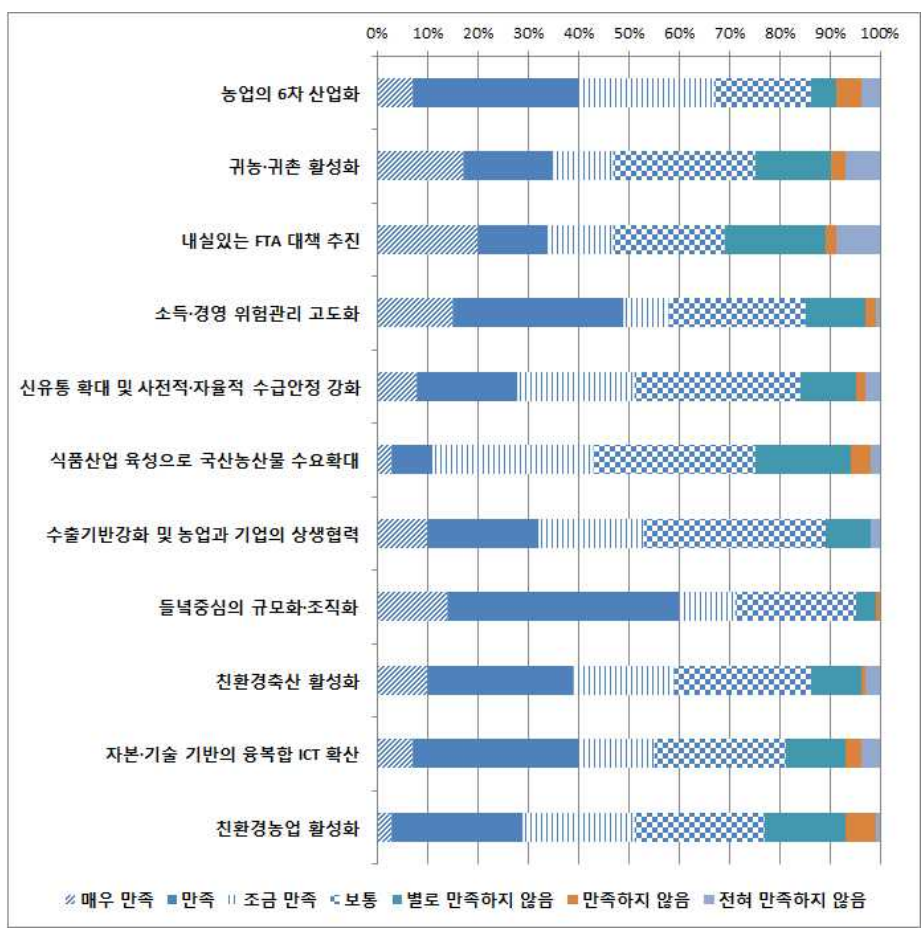
- 주요 정책과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1개 과제 전체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를 합쳐 응답자의 54.7%가량이 그렇다고 하였음
  - 중립적으로 답한 비중은 27.3%이며, 18%만이 부정적으로 답하였음
  - 7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을 때 전체 과제는 4.74점임
- 과제별로 만족도는 편차가 있었음
  -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과제는 농업의 6차산업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친환경 축산 활성화 과제 등임
  - 귀농·귀촌 활성화,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식품산업 육성 과제는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이나 귀농·귀촌 활성화와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과제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중도 가장 높아 만족도의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유통 확대 및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 강화, 식품산업 육성, 수출 기반 강화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과제는 보통이라고 중립적으로 답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전반적인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구체적 항목에 비해 낮음
- 품목별로는 수도작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과수와 시설원예에서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었음
- 공통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점, 사업신청절차의 복잡함을 문제점으로 들었음
  - 특히 귀농·귀촌 활성화,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수출기반 강화 및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과제에서 홍보부족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귀농·귀촌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사업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과제는 6차산업화,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친환경 축산

”

그림 11. 해당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3. 정책적 시사점

- 여러 만족도 항목 중 긍정적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정책의 필요성을 제외하면, 일관성, 사업기간, 전반적 만족도 항목
- 긍정적 비중이 낮게 나타난 항목은 집행 측면의 만족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에 달했으며, 특히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보완되는 과정의 만족도는 26%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개선과정의 재구축이 필요
- 7점 척도 점수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6차산업화, 소득·경영 위험관리, 들녘 중심의 규모화·조직화, 친환경축산, ITC 융복합 확산 등
- 특히 소득·경영 위험관리 고도화 과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요자 의견 반영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장의견 수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소득·경영 위험관리 관련 정책은 최근 농정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정신뢰 강화를 위해서 정책 수요자 및 관련 기관의 의견 반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7점 척도 기준으로 전반적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
- 국내시장 수요 제약이 주요 과제인 상황에서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정책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홍보뿐 아니라 정책방향 일관성, 목표 달성도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반영
  - 친환경농업,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의 과제는 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의 규모화, 기간 확대 등 개선이 필요

- 추진기관 및 단체에서 만족도는 72.7%로 직접 고객 만족도 50.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일관성·목표 달성도에서 높은 만족도
  - 추진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비율은 직접고객보다는 추진기관 및 단체에서 높게 평가
- 일관성, 목표달성도, 전반적인 만족도 중에서는 일관성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
  - 주요 정책에 대해 농업인 및 관련 기관은 그 필요성을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고, 초기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더라도 일관된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
  - 전반적 만족도보다 구체적 항목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개별 사업별로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중립적으로 답한 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단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만족도 제고가 필요
- 정책의 인지 경로에서 행정기관 의존도가 높아 지자체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 필요

---

## KREI 현안분석 제5호

2015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9. 15.  
발 행 2015. 9. 15.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mailto:dec5523@hanmail.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